

관화에 유화 겹들여 유려한 남도의 풍광 담다



한가로운 남도의 바다, 웅기종기 모인 마을과 집, 넓게 펼쳐진 들, 판, 다채로운 색의 나무와 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화면 안에 펼쳐진다. 그것도 칼과 나무로 아로새긴 목판화를 통해서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판화가 박구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박구환 작가, 30일까지 김넣과서 초대전

광주서 4년 만에 전시 40번째 개인전
‘회상’(Recollection) 주제 신작 23점 선보

목판화 소멸기법으로 남도의 서정적인 풍광을 새겨온 광주·전남 대표 판화가 박구환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복합문화공간 김넣과서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회상’(Recollection)을 주제로 하는 이 전시는 박 작가가 4년 만에 광주에서 여는 것으로, 작가의 마흔 번째 개인전이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판화에 유화를 접목한 신작 23점을 선보인다.

박 작가는 세밀한 표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법한 목판화 기법을 이용, 캔버스 위의 자유로운 붓질보다 더욱 정교한 색의 미학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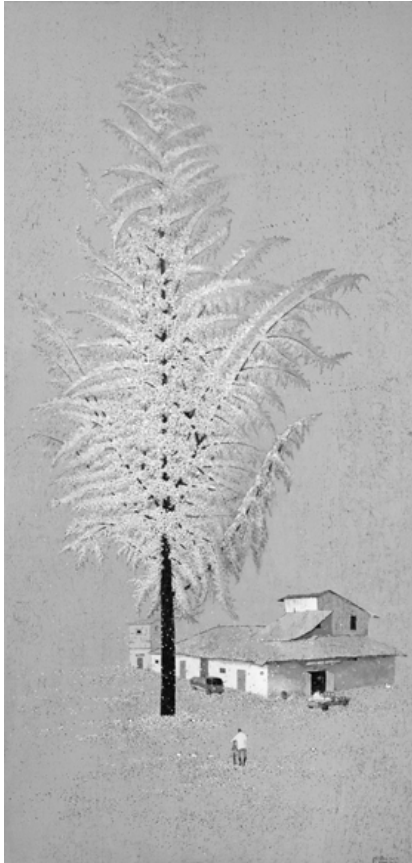
그의 목판화 소멸기법은 베니어판 재질이 주는 투박함과 파스텔톤 색채를 아우르며 화면을 따사롭고 생동감 넘치게 만든다. 그래서 파고 쪼개서 찍어낸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판화로 받아들이

기엔 무척 회화적이다.

이렇게 완성된 판화 작품에 유화 물감을 찍게 된 것은 2013~2014년. 판화가 접체기를 맞은 때였다. 변화를 결심한 박 작가는 자신의 판화 작품에 유화 물감을 찍어 또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작품을 완성했다.

박 작가는 “판화는 절대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압착에 의해 생기는 맛이 있다. 이는 절대 붓으로 대신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정확히 찍혀버리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붓으로 그려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며 “판으로 찍어낸 뒤에 물감을 올려 완성하는 기법은 판화같기도 한데 질감이 올라와 있어서 묘한 매력이 있다고들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작가는 “2015년 광주 리제컬러리에서 판화와 유화를 접목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매우 호응이 좋았다”며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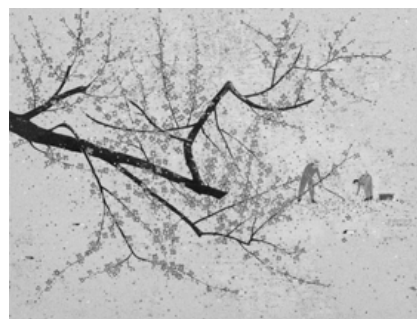


박구환 작 'In full bl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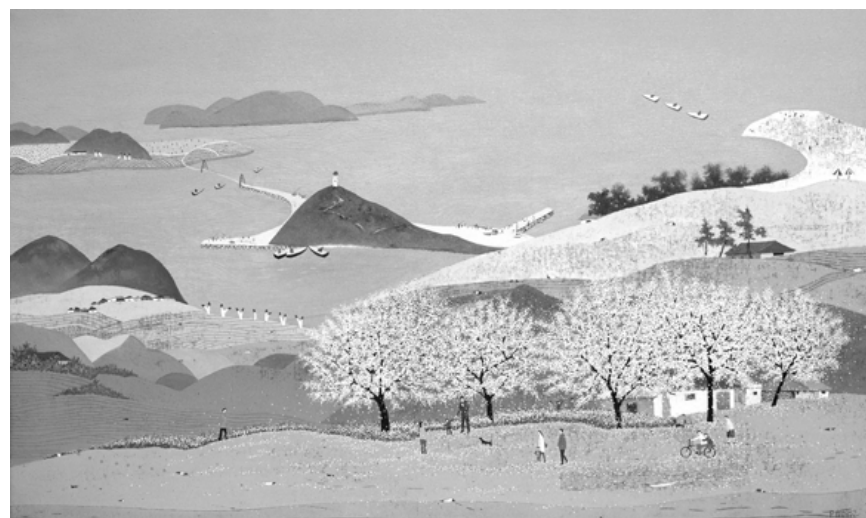
넣과 전시에서는 모두 유화를 겹들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남도의 자연 풍경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고 행복과 희망,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 회화과와 동대학원 순수미술과를 졸업한 후 1991년 문화재 보존기술을 배우러간 일본 유학 도중 판화를 접했다.

이후 일본에서 판화의 매력에 매료돼 판화가로 전향했다. 도쿄, 후쿠오카, 뉴욕, 대만 카오슝,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39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500여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일본사카미미술관, 대만관두미술관, 프랑스 에브르시박물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전시 문의 062-229-3355) /정겨울기자



박구환 작 'In full bloom'



박구환 작 'Recollection'

/작가제공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은암미술관, 초등생 주말문화예술 프로그램

은암미술관은 20일부터 주말예술배움터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재료로 내가 직접 만드는 작품들을 예술도시락으로 만드는 체험 활동이다.

첫 시간에는 작품을 담기 위한 도시락 틀을 제작하고, 내가 만든 다양한 작품이 도시락 반찬이 된다.

매주 진행되는 자신의 취향을 담은 작품들은 칸칸이 결과물을 담은 도시락의 형태로 완성된다. 각 기수 별로 총 12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은암미술관 아동프로그램 진행 장면.

요리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현장체험학습, 판소리 선생님과의 만남 등이 포함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담은 예술도시락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협동하며, ‘나’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1기는 오는 20일부터 7월6일까지, 2기는 7월27일부터 10월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

한편, 이 프로그램은 2019년 광주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문의 062-231-5299) /정겨울기자

조선대 미대 창작실기展

‘극한작업’ 주제 교내 미술관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생들이 창작 실기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극한작업—墨(먹)방’(이하 극한작업)이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창작전 ‘극한작업—먹방’을 지도한 박홍수 교수는 “대중이 쉽게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려는 목적과 한국화의 ‘먹’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성질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먹방’과 접목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먹방’은 누구나 쉽게 접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먹방’전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먹’이라는 소재를 젊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작가들이 각자의 내면 세계를 ‘먹’을 응용하고 이미지화한 작품들로 전시되고 있다.

창작실기전은 한국화의 정체성 찾기와 현대미술에 있어 다양한 형식의 미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과활동 및 창작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누구나 가능하다. /정겨울기자

‘음악분수’ 보러오세요

ACC, 11월까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11월 첫째 주까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ACC는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음악분수’를 운영해 AACC를 오가는 도중에 방문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작년 분수 디자인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비정원을 모티브로 음악과 함께 운영된다. ‘음악분수’는 숲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모티브로 ACC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꿈과 희망을 싣고 날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정겨울기자

이번 음악분수에서 올려 퍼질 음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ACC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시민들 신청곡과 ACC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12곡을 선정했다. 방문객들은 43분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점핑’, ‘샤프’, ‘핑거분수’ 등 화려한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다.

음악분수는 이달 16일부터 11월 첫 주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하루 5회 운영함으로써 주간에는 청량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야간에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밤의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겨울기자



당신의 건강한 Action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
가슴 벅찬 도전과 멈추지 않는 땀방울,
당신의 건강한 Action을 위해
실버랜드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가겠습니다.

태하런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헬스클럽 런닝머신(태하) 보상판매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상업용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062)651-9944~3